

# 부모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이미화 선임연구원

현대 우리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 가치관 및 양육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에 대해서는 제도화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처럼 부모교육을 제도화 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본고에서는 부모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부모들의 참여 의향, 제도화 필요성 여부, 선호하는 교육 내용, 원하는 교육 운영 형태 등을 알아보고 이에 근거하여 부모교육 제도화의 기본 방향과 제도화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도화 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양육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1. 서론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사회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교육을 단순히 자녀를 잘 키우는 차원에서 가정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화된 영역으로 오랫동안 간주해 온 것이 이제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공적인 공간으로 옮겨왔다. 부모교육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 이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인간생애주기별로 구성해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학뿐 아니

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변화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써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보다 세분화되고 발달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모지원 정책, 자녀돌봄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요구가 결합되어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모교육을 제도화하여 시행하는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부모역할 지원뿐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였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 전

\* 본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미화, 김은설, 이진화, 김길숙, 윤지연 외, 2015)'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된 부모교육 참여는 대부분이 부모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제도화는 영유아와 성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제도화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본 부모교육과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부모로서 역할 수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혼 가정 등 다양한 부모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가족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르므로 각 부모 상황에 따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의 예방 차원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자녀가치관 및 양육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무상교육과 보육이 시행된 이후 국가의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과 이용시간이 확대되면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양육의 주책임자인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부모교육의 방향에 공공성을 더하여 교육의 대상이 사회구성원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통한 부모교육의 보편적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주체인 부모에게 올바른 역할 수행과 가치관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15년에 실시된 조사결과<sup>1)</sup>를 근거로 자녀가 없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전반적인 부모교육 현황과 부모교육 제도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부모교육 경험 및 인식

부모교육 경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여성은 60.7%였으며 남성은 80.1%로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는 자녀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65.2%로 높고 유아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반대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가 53.2%로 더 높았다. 남성은 자녀가 없는 경우와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92.7%가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어 영유아 자녀를 둔 남성보다 20% 정도 차이가 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

1) 조사 대상은 전국의 지역,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서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한 (주)한국리서치의 패널(Master Sample)을 이용하였고, 기혼자로 자녀가 없는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영유아부모 1,012명이 참여하였으며 여자(예비모, 영유아모)가 806명, 남자(예비부, 영유아부)가 206명이었음.

나 20대 여성은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71.7%로 높았고 30대 이상은 59% 이하로 그에 비해 낮았다. 종합해 보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보다 아직 자녀가 없는 예비 부모나 20대 여성 및 남성에게서 부모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

한 비율이 더 높으므로 앞으로 이들을 위한 부모 교육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응답은 <표 2>와 같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능하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표 1> 부모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여				남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계(수)	$\chi^2(df)$	참여한 적 있다	참여한 적 없다	계(수)	$\chi^2(df)$
전체	39.3	60.7	100.0(806)		19.9	80.1	100.0(206)	
영유아 부모								
예비 부모	18.1	81.9	100.0(160)		7.3	92.7	100.0( 41)	
영아 부모	34.8	65.2	100.0(302)	22.10(1)***	25.3	74.7	100.0( 91)	5.08(1)*
유아 부모	53.2	46.8	100.0(344)		20.3	79.7	100.0( 74)	
연령								
20~29세	28.3	71.7	100.0( 92)		-	100.0	100.0( 3)	
30~39세	40.1	59.9	100.0(648)	6.50(2)*	21.3	78.8	100.0(160)	-
40세 이상	47.0	53.0	100.0( 66)		16.3	83.7	100.0( 43)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51.

\* $p < .05$ , \*\*\* $p < .001$ .

<표 2>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

단위: %(명)

구분	여				$\chi^2(df)$	남			
	반드시 참여	가능하면 참여	참여하지 않음	계(수)		반드시 참여	가능하면 참여	참여하지 않음	계(수)
전체	21.1	75.2	3.7	100.0(806)		21.4	76.7	1.9	100.0(206)
영유아 부모									
예비 부모	18.8	68.1	13.1	100.0(160)		14.6	85.4	-	
영아 부모	21.9	76.8	1.3	100.0(302)	49.26(2)***	20.9	76.9	2.2	100.0( 41)
유아 부모	21.5	77.0	1.5	100.0(344)		25.7	71.6	2.7	
연령									
20~29세	26.1	71.7	2.2	100.0( 92)		33.3	66.7	-	
30~39세	21.3	75.6	3.1	100.0(648)	-	23.1	75.0	1.9	100.0( 3)
40세 이상	12.1	75.8	12.1	100.0( 66)		14.0	83.7	2.3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56.

\*\*\* $p < .001$ .

75.2%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1%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여성의 향후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영유아부모와 예비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영유아 부모는 약 98% 이상인 것에 비해 예비 부모는 약 86% 정도에 머물러 영유아 부모가 더 참여의향을 높게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7%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4%로 총 98% 이상이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응답자 대다수가 가능한 한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을 미루어봤을 때 부모 교육 참여에 대한 의향이 굉장히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

〈표 3〉 부모교육 제도화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여			남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전체	87.2	12.8	100.8(806)	86.9	13.1	100.0(206)
부모 구분						
예비 부모	89.4	10.6	100.0(160)	82.9	17.1	100.0( 41)
영아 부모	85.1	14.9	100.0(302)	84.6	15.4	100.0( 91)
유아 부모	88.1	11.9	100.0(344)	91.9	8.1	100.0( 74)
연령						
20~29세	90.2	9.8	100.0( 92)	100.0	-	100.0( 3)
30~39세	86.6	13.4	100.0(648)	87.5	12.5	100.0(160)
40세 이상	89.4	10.6	100.0( 66)	83.7	16.3	100.0( 43)
월평균 가구소득						
260만원 이하	89.1	10.9	100.0(138)	85.3	14.7	100.0( 34)
261~350 만원	85.2	14.8	100.0(189)	92.9	7.1	100.0( 56)
351~450 만원	87.3	12.7	100.0(221)	87.0	13.0	100.0( 46)
451만원 이상	87.6	12.4	100.0(258)	82.9	17.1	100.0( 70)
직업						
자영업/생산직	96.2	3.8	100.0( 52)	83.3	16.7	100.0( 36)
사무직	88.8	11.2	100.0(329)	88.3	11.7	100.0(137)
경영/전문직	84.7	15.3	100.0( 72)	82.1	17.9	100.0( 28)
가정주부	84.0	16.0	100.0(331)	100.0	-	100.0( 2)
학생 및 기타	100.0	-	100.0( 22)	100.0	-	100.0( 3)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57.

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나 예비 부모들이 보다 열의를 갖고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참여해야 하겠다는 동기 및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제도화 마련과 함께 양질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3. 부모교육 제도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가. 부모교육 제도화 필요성

부모교육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87.2%, 남성은 86.9%로 매우 높았다(표3 참조). 세부적으로 자녀연령, 부모연령, 월평균 가구 소득, 직업별로 보았을 때도 구분과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비

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부들의 부모교육 제도화 필요성의 인식이 상당히 높은 점을 미루어보아 부모교육이 속히 제도화를 통해 사회 내에서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 1) 연령대별 부모교육 내용 인식 차이

영아기 부모교육과 유아기 부모교육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표 4>과 같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다르다는 응답이 90.4%, 같을 것이라는 9.6%로 응답자 대부분이 영유아기에 필요한 부모교육은 다른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만 연령별로 40세 이상의 경우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83.3%로 다른 연령이 90%대인 것보다 낮았고, 유아 부모가 다를 것이

<표 4> 영아기, 유아기 부모교육 내용의 차이 인식

단위: (%)

구분	여			남		
	다를 것이다	같을 것이다	계(수)	다를 것이다	같을 것이다	계(수)
전체	90.4	9.6	100.0(806)	92.7	7.3	100.0(206)
연령						
20~20세	94.6	5.4	100.0( 92)	100.0	-	100.0( 3)
30~39세	90.6	9.4	100.0(648)	93.1	6.9	100.0(160)
40세 이상	83.3	16.7	100.0( 66)	90.7	9.3	100.0( 43)
부모 구분						
예비 부모	93.8	6.3	100.0(160)	97.6	2.4	100.0( 41)
영아 부모	92.1	7.9	100.0(302)	92.3	7.7	100.0( 91)
유아 부모	87.5	12.5	100.0(344)	90.5	9.5	100.0( 74)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69.

〈표 5〉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단위: %(명)

구분	자녀와 대화법	자녀와 놀이법	자녀 생활 지도	영유아의 건강 영양	영유아 발달	영유아 안전	교재교육 기관선택 방법	신생아 돌보는 방법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계(수)
여	37.7	18.2	15.6	11.7	7.8	3.9	2.6	1.3	1.3	100.0(77)
남	33.3	26.7	6.7	13.3	13.3	6.7	-	-	-	100.0(15)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69.

라는 응답도 87.5%로 예비 부모와 영아 부모보다 낮았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영유아기에 필요한 부모교육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2) 선호하는 부모교육 내용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이 같다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 92명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각각 37.7%, 33.3%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와의 놀이 방법은 각각 18.2%, 26.7%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 순위로 영유아모는 자녀생활지도를, 영유아부는 영유아의 건강영양과 영유아발달을 선택하여 부와 모의 요구에 차이가 보였다.

## 다. 부모교육 운영 형태에 대한 요구

### 1) 온라인 교육과 기관중심 오프라인 운영형태 비교

부모교육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온라인 형태의 부모교육을 가장 선호하여 약 75%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온라인 형태의 부모교육이 필요성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인 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영아 부모인지 유아 부모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아 부모의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78.1%로 유아 부모의 응답 비율인 70.6%

〈표 6〉 온라인 형태 부모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여			X <sup>2</sup> (df)	남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전체	74.9	25.1	100.0(806)		75.2	24.8	100.0(206)
부모 구분							
예비 부모	78.1	21.9	100.0(160)	4.72(1)*	78.0	22.0	100.0(41)
영아 부모	78.1	21.9	100.0(302)		74.7	25.3	100.0(91)
유아 부모	70.6	29.4	100.0(344)		74.3	25.7	100.0(74)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69.

\*p < .05

〈표 7〉 온라인 형태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의 제약 없음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주제에 대해 즉시 찾음	장소의 제약 없음	반복적으로 교육 받음	계(수)	X <sup>2</sup> (df)
여	62.3	20.2	12.3	5.0	100.0(604)	
모 구분						
예비모	62.4	20.8	12.0	4.8	100.0(125)	
영아모	62.3	20.3	11.4	5.1	100.0(236)	
유아모	62.1	19.8	13.2	4.9	100.0(243)	
남	54.2	19.4	16.8	9.7	100.0(155)	
부 구분						
예비부	53.1	18.8	18.8	9.4	100.0( 32)	
영아부	51.5	25.0	8.8	14.7	100.0( 68)	
유아부	58.2	12.7	25.5	3.6	100.0( 55)	11.59(3)**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76~77.

\*\*p < .01

보다 더 높았다(표 6 참조).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도 여성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2%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며, 자녀 연령, 월 평균 가구소득 직업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형태 부모 교육의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려줌으로써 부모교육의 한 가지 형태로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형태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표 7〉과 같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시간의 제약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62.3%로 가장 높았고,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주제에 대해 즉시 찾아 교육 받을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20.2%로 다음으로 높았다.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다'는 12.3%, '반복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는 5.0%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형태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시간의 제약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았고,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주제에 대해 즉시 찾아 교육 받을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19.4%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다'는 16.8%였고, '반복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다'가 9.7%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이러한 응답 비율은 영아 부모인지 유아 부모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부모 모두 시간제약이 없다는 것이 온라인 교육 필요의 가장 큰 이유였지만 영아부모는 필요한 주제를 즉시 찾을 수 있다는 이유가 다음으로 많았고 유아 부모는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이유가 다음으로 많았다.

그동안 부모 교육을 받는데 시간적 제약의 어

〈표 8〉 오프라인 형태 부모교육 운영방법

구분	여		남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 시간	주말 오전	평일 오전	주말 오전	평일 저녁
교육 장소	유치원·어린이집	지역센터	지역센터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유형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동중심 워크숍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동중심 워크숍
수강집단 형태	소집단(2-10명)	중집단(10-30명)	소집단(2-10명)	중집단(10-30명)
교육 횟수	2~3회	4~5회	2~3회	4~5회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89.

려움이 많았음을 보여주며, 온라인 형태의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들이 온라인 형태 부모교육의 장점으로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부모교육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적정 비율은 평균 50%정도로 반반 정도의 구성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오프라인 형태 부모 교육이 진행될 때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 1회성 교육이나 너무 많은 횟수의 교육보다는 2~3회 정도의 교육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성 응답자 중에는 가정주부의 수가 많았는데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2~3회 정도의 교육을 48.6%의 비율로 선호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많은 횟수의 교육보다는 적당한 횟수의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관중심의 오프라인 형태의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호하는 운영방법에 대해 남녀를 비교한 내용은 〈표 8〉와 같다.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남녀 모두 주말 오전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여성은 평일 오전을 남성은 평일 저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장소는 여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였고 2순위로는 지역센터를 선호한 반면, 남성은 지역센터를 가장 선호하였고 2순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호하였다. 교육유형은 남녀 모두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고 활동중심 워크숍을 두 번째로 선호하였다. 수강집단 형태와 교육 횟수는 남녀모두 2~10명 미만의 소집단과 2~3회 정도의 교육을 선호하였고 두 번째로 10~30명 미만의 중집단과 4~5회 정도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육 시간과 장소는 남녀가 선호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 교육대상에 맞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맞벌이 가정과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요구 비교

다음은 기관중심의 오프라인 형태의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운영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9 참조). 교육시간에 대한 요구를

〈표 9〉 오프라인 형태 부모교육 운영방법

단위: %(명)

〈교육 시간〉								
구분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평일 점심시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저녁	계(수)
맞벌이 가정	11.7	7.6	20.4	3.0	37.4	17.7	2.2	100.0(538)
맞벌이 아님	36.1	14.7	9.3	5.8	20.1	12.8	1.1	100.0(462)
〈교육 장소〉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 센터	주민자치 센터	직장	복지관	마을 회관	기타	계(수)
맞벌이 가정	30.3	26.6	22.3	12.8	7.1	0.2	0.7	100.0(538)
맞벌이 아님	27.3	29.4	31.8	3.5	6.1	0.9	1.1	100.0(462)
〈교육 유형〉								
구분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동중심 워크숍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	가정 방문	기타	계(수)		
맞벌이 가정	55.4	25.8	16.0	2.6	0.2	100.0(538)		
맞벌이 아님	54.3	25.1	16.9	3.7	-	100.0(462)		
〈수강집단 형태〉								
구분	개인교육(1 : 1)	소집단(2~10명 미만)	중집단(10~30명 미만)	대집단(30명 이상)	기타	계(수)		
맞벌이 가정	5.2	70.1	21.7	2.8	0.2	100.0(538)		
맞벌이 아님	3.9	70.8	22.7	2.6	-	100.0(462)		
〈교육 횟수〉								
구분	1회성 교육	2~3회	4~5회	6~7회	8~9회	10회 이상	계(수)	
맞벌이 가정	7.8	47.0	29.6	3.5	0.6	11.5	100.0(538)	
맞벌이 아님	8.2	47.6	29.0	3.5	1.1	10.6	100.0(462)	

자료: 이미화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p.108.

비교해 보면 맞벌이 가정은 주말 오전을 37.4%로 가장 선호하였고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는 평일 오전을 36.1%로 가장 선호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일에 부모교육을 참여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주말시간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장소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을 30.3%로 가장 선호하였고 지역센터 26.9%, 주

민자치센터 22.3% 순이었으며,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31.8%, 지역센터 29.4%, 유치원·어린이집 27.3%로 선호하는 장소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유형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54%이상 선호하였고, 활동중심 워크숍을 25%로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집단의 형태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2~10

명 미만의 소집단이 대부분이었으며, 10~30명 미만의 중집단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 횟수 선호도는 2~3회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약 29%가 4~5회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회 이상의 장기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10%정도였다.

#### 4. 부모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부모교육제도화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사회에서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분석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일회성 또는 단기,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결국 부모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구는 수요자가 처한 상황과 양육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이러한 차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부모교육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예비 부모교육에서부터 영유아기 취학 전단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제도 도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부모교육 내용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설명, 안내 혹은 홍보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부모교육은 내용성격에 따라 일회성 혹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목적,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각 생

애주기별 부모교육안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화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제도화로 인해 요구되어지는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부모교육제도화는 지역화 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한 정책결정은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구체적인 실행은 지역사회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취학 전 시기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위 기관과 지역사회 거점센터 간의 연계로 실행될 수 있고, 가정양육 부모는 거점 지역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넷째, 부모교육제도화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교육 요구도 조사, 교재교구개발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부모교육제도화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법령을 고찰한 결과, 인간생애주기별에 맞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건강가정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을 잘 연결하여 구성해야 한다.

부모교육 제도화는 우리 사회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재 산발되어있는 부모교육의 방향, 내용 및 방법 등을 체계화하여 양질의 측면에서 제고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